

##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이*경
파견국가	캐나다(Canada)	파견도시	밴쿠버(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15.09~15.12.18
귀국여부	아니오( 16.01.05 귀국예정 )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Langara College 는 밴쿠버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의 전철격인 skytrain, Canada Line에 속하는 Langara 49<sup>th</sup> avenue station에서 도보 몇 분 내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는 많이 작은 축에 속하며, 시설은 거의 신설이고 새로 짓는 건물까지 있어 거의 최신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건물이 복잡하여 길을 자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p>
수업	<p><i>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수업내용은 아시다시피, 아카데믹한 수업에 치중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필요한 writing, reading, listening 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ESL 수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외에도 다른 한국학생들이 같은 시기에 많이 파견되었으나 저는 두 세션 모두 클래스에 혼자 한국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매 세션마다 바뀌며,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제는 생각보다 양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 수업방식에 따라 이견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업준비는 딱히 없고 과제 잘하기, 수업 잘 나가기 그리고 매 세션 별 최소 1-2번 이루어지는 팀 프로젝트 잘 하기 정도가 있겠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학교에 처음 나가면, placement test와 이후 homestay,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오티를 참석하게 됩니다. 다른 학교에서 파견된 한국학생, 일본학생들과도 함께 듣게 되며 딱히 교환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는 IE라고 1층에 위치하는데, 문의사항은 그 쪽에 여쭙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갖가지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많이 열리는 편인데, 이건 교환학생이라기 보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활동지원이기 때문에 시간나실 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많은 수기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겨울의 밴쿠버는 레인쿠버라 불리울 정도로 비가 자주 자잘하거나 많이 내립니다. 홈스테이 가족분들께서도 미리 유의사항으로 알려주시어, 저는 장화와 우산 심지어 레인코트도 들고 갔었습니다. 코트까진 불필요하고 장화나 우산은 필수인 듯 합니다. 장화같은 경우는 번거로우시면 워커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후드집업같은 후드가 달린 옷을 많이 들고오세요. 여기는 비가와도 우산을 잘 안쓰고 후드를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처음엔 왜 저러고 다니나 싶다가도 나중되면 나도 모르게 후드만 쓰고 돌아다니게 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캐나다라는 나라 자체의 치안이 좋다고 들어 별 생각을 안하고 갔으나,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옆에서 말걸거나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p>

	<p>많이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피하거나 무시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냥 이건 상황봐서 잘 대처하면 되는 것 같고 치안은 안전합니다. 미국여행을 다니면서 미국보다는 훨씬 괜찮다고 느낍니다. 헤이스팅스와 메인만 피해서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V ) 외부 숙소( )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에서 4개월 간 생활하였고, 까다로운 식습관에 잘 맞춰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노부와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와 함께 생활을 하였고, 친구 덕에 적응도 금방하고 다른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분께서는 여러 가지 시에서 운영하는 대회라던지 액티비티에 데려가주시고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여기는 상점도 일찍 문을 닫는 편이고, 홈스테이 또한 가정 별로 다르겠지만 저희는 노부부여서 일찍 주무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는 빨래와 샤워하는 것도 조금 눈치 보이기도 했습니다. 빨래는 되도록 1주일에 한 번, 자잘한 집안일(밥 먹고 식기세척기에 접시담아 넣기, 식탁닦기 등..)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가 했던 집안 규칙같은 것이었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V )</p> <p>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분명히 홈스테이 배정시 받게되는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구분표에 채소류를 싫어한다고 적었었는데, 반대로 채소가 많이 나오는 식단이라 초반에는 살도 많이 빠지고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 갖가지 핑계를 대어 외식을 나가곤 했는데, 홈스테이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하면 야채를 먹일까 고민을 하셨는지 점차 야채와 고기를 응용한 음식을 해주셨고, 입에 아주 잘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가끔은 파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터키나 뷔페식 음식을 먹고, 바쁘실 때는 leftover 데워서 먹곤 했습니다. 저희는 같이 사는 학생이 주가 아시안 학생이어서, 집에 항상 밥이 있어서 밥이 그립거나 하진 않았습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먼슬리 패스를 매 달 31일이나 1일에 구입하여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중간에 환승을 해야만 학교를 갈 수 있어, 번거로웠으나 괜찮았습니다. 거의 먼슬리 패스만 있으면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어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시간대와 주말시간은 1,2,3존의 구분없이 1존의 패스만 있으면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되어있어 여행다니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1월 기준으로 Compass card 제도가 도입되어 약간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740,000	미리 연초에 구입하여 싸게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Fees	학교학비 외에 따로 낸 금액은 없습니다.	
<i>보험료</i>	₩200,000(대략, 잘 기억이 안남)	동부화재 유학생보험
숙소	선납 CAD \$2095 후납 CAD \$800 + \$26x19(days)	선납 : pick up 비용+배정비+2달치 후납 : 나머지 1달 + 종강까지 마지막 달은 하루당으로 계산해서 돈냈음
식비	이건 외식을 얼마나 하냐에 달려있습니다.	
교통비	CAD \$91 x 4	
책값	CAD \$10 x 4 + 10(자잘한 준비물들)	작은 이야기 책을 사라고해서, 몇 권 사고 준비물 사는 비용
기타1		
기타2		
기타3		

합계		
----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준비 잘 해오심이 좋을 듯 하며, 캐나다는 이민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에 대해 차별없이 열린 사고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공부는 좀 하고 오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지난 4개월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처음으로 나간 외국에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롭게 배운 것들은 어딜 가서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영어를 정말 잘 하려 갈 것이라 여기지 않고 갔기에 크게 부담을 많이 안느껴서 인지 영어가 초반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초반에 너무 못했기에..) 캐나다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꿈도 갖게 되었고, 여러모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어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도 갖게 된 계기로도 작용했고, 미국여행을 다니다 다시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날을 기다리는 지금 아쉬운 것도 많지만 정말 고맙고 값진 경험이었다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잉글리쉬 베이의 부자상 앞에서</p>	<p>홈스테이 가족들과 Thanksgiving day</p>



빅토리아 섬



가족들과 마라톤 대회



할로윈파티



레이크 루이스 앞에서